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5권 19호(나해)2015년 4월 5일

[묵상]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빈 무덤의 상징성

빈 무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곳
빈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장소나 시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하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길은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성체를 통한 내 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성체성사의 의미이고 근본**이고,
이것이 **빈 무덤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참 부활의 길이다.

-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 요 일	새 벽 미 사	오전 6:30
화 요 일	저 녁 미사	오후 7:3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애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애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 요 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 일	레지오 마리애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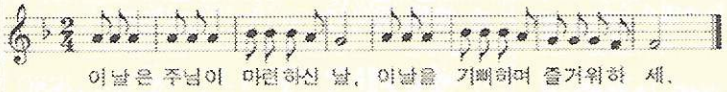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생)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0,34ㄱ.37ㄴ-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3,1-4<또는1코린5,6ㄴ-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알렐루야.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복음 요한(John) 20,1-9또는 마르코(Mark)16,1-7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3)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는 인간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따른 삶도 은사 식별의 기준이 된다. 성령에 따른 삶에 대한 윤곽은 바오로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이다" (로마 8,15) .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2코린 3,17) .

둘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로마 8,9 참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라면 그분처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마르 3,35; 14,36; 필리 2,8 참조) . 베드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심한 꾸지람을 듣는다(마르 8,32-33 참조).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 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요한 14,24 참조).

셋째,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란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로마 8,13)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갈라 5,22-23) 를 드러내는 삶이다.

<◆계속>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시작	169
봉헌	167, 261
성체	306
파견	170

빈무덤-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빈 무덤 이야기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부활 증언은 그 '때'에 대한 묘사부터 조금은 색다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흔히 초대교회 부활신앙 정식에 자주 등장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 막달레나의 특별한 예수님 사랑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2) 사실, 그 당시 무덤을 강탈하는 강도의 예는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기 40년경 클라우디우스(Claudius) 황제가 내린,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훔치거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운 자는 무거운 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이니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아마포가 놓여 있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는 복음 사가의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어느 강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상황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강도가 '수건을 따로 잘 개켜둘'리도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당시로써는 꽤 비싸고 값나가는 '아마포와 수건'을 두고 갈 강도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직접 묘사가 아니라 '빈 무덤'에 대한 기사로 증언됩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고 필설의 묘사를 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이해되는데, 문장 표현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홀로 '보고 믿은' 것으로 나오지만, 어찌 그 제자만 그 순간을 보고 믿었을까요. 자신의 한 많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신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마리아 막달레나나, 결정적 순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나 모두, 그 '빈 무덤'을 본 순간, 생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남'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때로는 우리 고단한 삶이 '무덤'에서 안식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갖가지 형태의 '무덤'이 우리를 가두고서는'쉼'을 준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안주할 때, 우리는 '무덤' 안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새롭게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 정순택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기도묵상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고, 제자가 스승 곁에 있으며,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이가 안전한 피난처를,
앞 못 보는 이가 빛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강혜원 아네스 송인선 안젤라	주일학교	유철희 바오로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장주란 마리아 유지아 클라라	주일학교	유현자 안나
서 간	황지영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동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시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h.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들께 부활절 선물 전달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기쁘고 뜻있게 보내기 위해 본당의 어르신들과 이웃 노인 아파트(마리코파와 칼슨)에 부활 선물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서는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전달 일시 : 오늘 부활 대 축일 미사 후

◈엠마오 여행 안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4월 6일 당일 엠마오 여행을 다녀옵니다.

- 여행지 : 솔뱅 및 산타 바바라
- 출발시간 : 4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 귀환시간 : 오후 7시
- 함께 하시는 분들은 버스가 성당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미리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여행 경비는 성당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 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소방 대피 훈련

4월 12일 11시 미사 후 소방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 안전하게 참여하며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시상식 "축하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실시하였던 **마르코 복음서 쓰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활 대 축일 학생미사 중 아이들이 정성껏 적은 노트들이 봉헌될 예정이며,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총 19명의 학생들과 1명의 교사, 그리고 1명의 학부모께서 마르코 복음서를 필사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일 요한복음쓰기를 시작으로 복음서 쓰기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지난 4년간 모든 복음서를 필사한 학생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장윤서 James Jang
박세진 Sejin Park
장준서 Justin Jang
고하나 Kimberly Ko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5일(주일) * 부활 대축일 전신자 점심 나눔 : 우거지국 (무료)
- 4월12일(주일) *PV3반 : 잡채밥($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 (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흥 구자운 국세찬 김병조 김선영 김인성 김학겸 김형순 박종열 성낙호 손 석 오세원 오일순 원건희 윤석구 윤선희 이경태 이은경 이현주 임연조 전동훈 차병용 최수복 최영신 최태훈 한혁수 이크리스 합계:$3,440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흥 구자운 국세찬 김병조 성낙호 손 석 오세원 원건희 윤선희 이경태 이현주 차병용 최영신 최태훈 한혁수 이크리스 합계 : $1,140
주일미사 헌금 : $2,744			

공지사항

◈ 부활 대 축일 주일학교 행사 안내

부활 대 축일 학생미사 후, 야외에서 모든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초등부 : 성전 옆 잔디밭, 여러 이벤트 진행
- ●중등부: 십자가의 길 잔디밭, 에그 헌트
- ●고등부: 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도와 행사 진행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5일까지 등록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백삼위 한국 학교 단어 경시 대회

- 일시 : 오늘 주일(5일)
- 시상식 : 4월 12일(주일) 학생 미사 중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장 ☎(213)700-9399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2층
- 기간 : 4월10일 부터 매주 금요일 (07:00~08:30)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시다. ☺

남가주 소식

기쁠 때에만 있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슬플 때에만 있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오셨기에,
그 자리에서 나를 계속 바라봐주셨기에,
마음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지경수 마태오 991-4838 4/12(수) 오후1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1(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7(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4/19(일)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재호 펠릭스 848-0590 4/11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4/1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수 다미아노 625-3312 4/25(토) 오후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34-6923 4/10(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 루시아 213-458-3356 4/1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257-8416 4/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4/11(토) 오후 7시 강당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4/10(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793-6157 4/17(금) 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정자 릿다 890-1778 4/19(일) 오후 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617-3568 4/14(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오후1시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대지에 다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주님의 부활 대 축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남과 북의 모든 형제자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온 국민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주님 은총의 힘으로 희생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그분을 증거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은총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세계 도처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테러와 폭력, 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고귀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며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 물신주의와 생명경시 풍조, 진영논리로 인한 비난과 증오가 날로 증가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삶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되어 그분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 곧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의 삶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로서, "결코 한 번에 영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사목헌장」 78항)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각오를 합시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으로 남과 북이 새롭게 되어 서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며, 순교자의 피는 남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한의 형제들이 하루빨리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여 함께 평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뒤로하고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고 희생합시다. 우리 각자의 변화 없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이번 사순 기간에 한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주도하여 범종교인 차원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의 기치를 드높여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실천운동이 각 계층에서 활발하게 이어져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 자신과 가정만을 바라보는 좁은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는 데 힘을 모은다면, 물신주의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와 여러 분열 상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생생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성되실 때까지(갈라 4,19 참조) 그분을 닮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부활의 빛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5일 부활절에

◆염수정 추기경 /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